불자 세상보기

평화시위, 성숙한 민주주의 불꽃되길



연 기 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른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온 국민이 망연자실 나라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황당무계한 사건에 실망과 분노에 찬 국민들의 함성이 파도를 타고 점점 더 높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대학가의 시위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남녀노소 국민들은 나라를 걱정하며 급기야 거리로 뛰쳐나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 피켓까지 치켜들고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촛불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돼 11월 5일에는 30만개의 촛불이 전국 곳곳에서 타올랐다. 주최 측에 의하면 서울 광화문광장에만 20여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추산한다.

시위진압을 위해 무려 220개 중대, 약 2만 명의 경찰이 배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며 질서정연하게 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시민들은 촛불과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밴드, 래퍼 등의 문화공연도 함께 했다.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기가 막힌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시종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의 모습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새로운 집회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과거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하던 시위현장을 떠올려 보면 큰 변화를 느낀다. 참여자들의 표정도 당당하고 뿌듯한 심정인 것 같다.

하야(下野)를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른 성난 민심에 밀려 박대통령이 두 번이나 대국민사과를 하고, 마침내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실권총리의 추천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아직도 정국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박 대통령은 읽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의 행보를 보면 최순실게이트의 각종 의혹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실상 하야인 '완전한 2선 후퇴'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1553개 시민단체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라는 비상시국대책기구를 결성하고, 촛불시위를 주관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함께 앞으로 조직적인 대규모 집회를 열어가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온 국민들이 한꺼번에 시위대에 뛰어든다 해도, 지난 11 · 5광화문집회에서 보여준 비폭력 평화적 행진처럼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존심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폭력적인 권력을 동원하게 한다든지 불미스런 탄압의 빌미를 주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아시다시피, 촛불시위는 과거 동독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기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저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축제의 성격도 띠고 있었지만 결국 비폭력 민주시민운동의 상징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끝없이 펼치는 달라이 라마의 불교사상에 입각한 비폭력 저항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있음에도 달라이라마는 "인간의 본질은 폭력을 싫어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지극히 고되지만 평화로운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후회가 얼마나 크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5% 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 그를 뽑아준 사람들에 의해 사실상 국민탄핵이 발동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역사적 소명이다. 아무리 어이없고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정치권력이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맞서 억지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정치권과 대통령은 위기극복을 위한 사태수습과정에서 모든 걸 비우고, 다 내려놓고, 애국애족의 마음 하나로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는 국민들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에 바탕을 둔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정당성과 도덕성을 확인시켜주며,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하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발언대

사찰음식의 정체성

불교계 대표 사찰음식점인 '발우공양'이 세계적 권위의 음식 가이드인 '미슐랭 가이드- 서울편'에서 별 한개를 받았다.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세계 유수의 식당 반열에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현재 사찰음식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미슐랭 별? 언젠간 없어질 수도"



적문 스님
평택 수도사 주지

미슐랭 가이드서 별 1개를 받았던 2개를 받았던 중요한 것은 사찰음식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다. 현재는 사찰음식을 연구하는 스님들의 교육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업화를 논하기 전에 사찰음식에 대한 스님들의 가치관 및 의식부터 정립해야한다.

사찰음식의 본질은 '수행자의 음식'이란 것이다. 즉 수행자의 가치관이 깃든 음식으로, 스님들은 음식을 요리할 때나 먹을 때도 음식에 담긴 철학과 의미를 되새긴다. 이는 사찰음식이 단순한 상업용 음식이 아닌, 그 철학과 본질적 뿌리가 지켜져야만 하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사찰음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가치관을 이해하는 스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스님들의 인식을 바로잡아 줄 교육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사찰음식점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사찰음식 교육관'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스님들도 사찰음식을 배울 때 쉬운 것만 배우려고 하는데 이 마음가짐부터 고쳐야한다. 장 담그기 등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출발해 스스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찰음식점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요즘 사찰음식점이라며 우후죽순 생기는데, 오리 등 육류를 팔면서 사찰음식이란 이름을 내건 일반음식점이 적지 않다. 미슐랭 가이드 선정을 기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찰음식에 관심을 갖고, 상업화도 가속화될 텐데 그 전에 미리 확립해놓지 않으면 사찰음식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찰음식 정체성 먼저 고민해야



정태겸
여행작가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시선의 차이가 꽤나 크다는 걸 확인한 정도다.

나에게는 아무래도 사찰음식점 '발우공양'이 별 하나를 받은 것이 눈에 확 들어왔다. 하지만 이는 경사라기보다는 위기로 느껴지는 부분이 크다. 사찰음식 자체의 정체성, 어떤 것이 사찰음식인지에 대한 담론을 빨리 형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빠르게 이미지가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지의 빠른 소모는 결국 도태되는 길을 걷게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중에게 칭찬 받는 건 잠깐이지만, 대중이 실망하는 건 더 빠르다. 음식장사에 무슨 철학이 필요하냐고 묻거든 크게 해줄 말은 없다. 하지만 사찰음식은 반드시 철학이 필요하다. 수행자의 음식이 모태이기 때문이다.

굳이 모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 어차피 수행에 초점을 맞추면 대중들에게 어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중의 시선에 맞도록 적절히 포장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절밥'과 '사찰음식'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사찰음식이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래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그럴듯 보기 좋은 요리를 내놓는 것보다는 무엇이 사찰음식인지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에 걸맞는 음식으로 다듬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 반석을 잘 다듬어 놓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박수를 보내주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를 받는 것도 불가능은 아닐 것이다.

社說

직선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대중공사 참석자 60.7%, 법계 중덕 이상 대상 조계종 공식여론조사 80.5%. 총무원장 선출을 직선제로 하자는 여론 비율이다. 이처럼 직선제에 대한 종도들의 높은 열망에도 직선제 법제화가 중앙종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패의 해법은 사회에서 이미 증명됐다. 바로 민주화다. 발전의 원동력도 증명됐다. 바로 민주화이다.

총무원장 선출 직선제는 다른 말로 승단의 행정 민주화를 의미한다. 남녀, 연령, 법랍을 불문하고 총무원장 선출에 있어 똑같은 1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승단에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거대 사찰 · 문중이 지속적으로 총무원장을 배출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라 지적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직선제를 막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청정승가를 확고히 하고, 어른 스님을 공경하는 문화를 만들어 해결해야 될 문제다.

또 행정수반으로서의 총무원장 역할을 확고히 하고, 권한 분산을 통해 종단 내 권력 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막는다면 총무원장직을 둘러싼 선거열풍도 자연스럽게 수그러 들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이후 후속 조치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종도들이 직선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바로 직선제 도입시 발생하는 문제점 보다 긍정적 효과가 많기 때문이다.

직선제 종헌 개정안의 이번 법제화 시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불교시민사회에서 직선제 추진 움직임은 꾸준히 일 것이며, 선거마다 총무원장의 공약 사항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종도들의 열망은 거세다. 직선제란 강물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불교미래포럼 창립에 거는 기대

한국불교 담론을 이끌 지식인 결집체가 창립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가 오는 11월 21일 불교 지성인들의 결집체인 '불교미래포럼 창립법회'를 봉행한다고 한다.

교불련이 주축이 돼 1년 넘게 준비한 불교미래포럼은 불자교수들을 필두로 교계와 학계를 망라하는 불교 지성인 결집체를 지향한다. 그간 교불련은 불자교수들의 연결망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불교 종단 위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등은 매우 미흡했다.

불교미래포럼이 창립하는 이유도 그간의 불교 지성으로서 부족했던 점을 일신하는 데 있다. 이는 포럼 안에서 만들어지는 세부 위원회를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불교 내부 현안을 담당하는 불교정책위원회가 있고, 사회적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불교사회위원회,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불교세계화위원회가 각각 구성된다.

불교미래포럼은 신행단체가 아닌 만큼 종단 등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불교 내 · 외 현안을 두루 다룰 계획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최순실 게이트부터 혐오 문화, 사회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더미이다. 지성인이 해야 할 역할은 혼돈의 시대에 나침반이되는 것이다.

여러운 시대마다 참된 지성인들은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존경이라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그만큼 부단한 성찰과 자기희생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불자 지성인들의 연합체임 불교미래포럼도 성찰과 실천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 불교미래포럼이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사회 변화를 응시하며, 통섭의 이상으로 생산적인 담론의 장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한국최초!!
내 손 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 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해 드립니다.)
동영상 CD(외장하드)를 함께 드리며 화상강의도 가능합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著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부처님 마음 공부
무량 청정암 열린 마음선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부처님 마음공부를
함께하실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아 래
❶ 교육과정 및 일정

과 정	요일및시간	수업내용	
기초과정	매주 화요일 (요일 변경 가능)	염불선	1단계 : 불교이해 2단계 : 경전독송 이해
중급과정	매주 수요일	참 선	참선이해, 법거량
고급과정	매주 금요일	간화선	화두참구, 깨달음

❷ 수업 신청 방법
– 기초과정 : 3개월 선착순 (20명 이내 한정)
– 법사와 1대 1 수업 운영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❸ 교육장소 : 무량 청정암
❹ 교 수 : 무량 청정암 최정훈 법사
❺ 문 의 : 010-2559-6886
무 량 청 정 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76번길 23